

# SK이노베이션, 2차전지 공장 착공

2011년 200MWh에 2012년 300MWh 건설 ... R&D에서 소재 생산까지

SK이노베이션이 충남 서산에서 2차전지 공장의 착공에 들어갔다.

SK이노베이션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 서산일반산업단지에서 2차전지 공장의 착공식을 가졌다고 5월30일 발표했다.

서산일반산업단지 23만1000m<sup>2</sup>(약 7만평) 부지에 2011년 초까지 1차로 200MWh 라인을 건설한 후 2012년까지 추가로 300MWh 생산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다.

대전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1호라인(100MWh)을 포함하면 생산능력이 600MWh로 확대돼 고속 전기자동차(EV) 3만대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.

SK이노베이션은 현대·기아자동차의 고속 전기자동차 <블루온>과 메르세데스AMG의 전기 슈퍼자동차 <SLS AMG E-CELL>, Daimler 산하 Mitsubishi Fuso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.

최재원 수석부회장은 “서산공장이 완공되면 대전의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(배터리 기술 개발), 충북 증평의 LiB(리튬이온전지 분리막) 생산라인과 연계해 배터리 연구개발-소재-생산을 아우르는 삼각 벨트를 형성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SK이노베이션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외에 청정 석탄에너지, 그린폴(이산화탄소 플라스틱), 바이오연료, 수소에너지,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미래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5/30>